

최후 심판과 책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 요한계시록 20:11-15의 두 종류의 책들과 흰 보좌심판

김경식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강사)

I. 서론

요한계시록의 20-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말을 장식하는 절정이다. 이 장들은 옛 창조가 결말이 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인간 역사의 끝을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옛 창조와 새 창조의 전환점을 다루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0:11-15의 흰 보좌 심판이다. 여기에는 거대한 흰 보좌가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아서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유향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운명을 맞게 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이 흰 보좌 심판 장면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책들의 상관관계이다. 거기에는 왜 ‘행위의 책들’이 있고, 또 동시에 ‘생명의 책’이 나오는가? 이 두 종류의 책은 이 흰 보좌 심판 장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며, 요한계시록 전체 신학

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종류의 책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다루어 놓은 글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다. 많은 주석이나 논문들의 관심을 끈 것은 주로 20장 전반부에 놓여 있는 천년왕국에 관한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흰 보좌 심판 장면에서 왜 두 종류의 책들이 공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은 요한계시록 전체 신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히는 연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인은 이 두 종류의 책들의 성격과 이들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음의 단계를 밟으려고 한다. 먼저, 요한계시록 20:11-15의 흰 보좌 심판 장면의 배경이 되는 초기 유대교 문헌들을 배경으로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의 흰 보좌 심판에서 누구의 부활과 누구의 심판을 그리려고 했는지 밝힐 것이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자체의 진술과 신학을 바탕으로 우리의 분석 대상인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의 성격과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밝힐 것이다.

II. 요한계시록 20:11-15는 악인들만의 심판인가?— 바다와 죽은 자들

먼저, 20:11-15에 언급되는 흰 보좌 앞의 심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심판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다.¹⁾ 이 논의는 뒤에 나오는 두

-
- 1) 물론 성경 자체, 특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언급하는 보편적 최후심판 자체를 부인하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이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예가 T. Francis Glasson, "The Last Judgment—In Rev. 20 and Related Writings," *NTS* 28/4(1982), 528-38. 그는 "all kinds of problems arise if we attempt to imagine a judgment of all humanity, all who have ever lived, assembled before a Great White Throne..."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the whole idea of the Last Judgment as an event should be

종류의 책들에 대한 예비적 고찰로서 누가 심판을 받느냐에 따라 흰 보좌에 펼쳐져 있는 책들을 달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논의이다. 악인과 의인들이 다 이 보좌 앞에서 최후심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악인들만 흰 보좌 앞에서 최후심판을 받는 것인가?

사실 20:11-15는 누구의 심판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몇몇 학자들은 이 본문을 악인들만의 최후심판으로 본다.²⁾ 악인들만의 심판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하는 글들은 맥레오드(MacLeod)의 논문에 열거되어 있다.³⁾ 약간의 이견들이 있기 하지만, 이 견해에 의하면 악인들만을 이 흰 보좌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첫 번째 근거는 20:13에 등장하는 바다이다. 즉,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짐승이 올라오는 기원이 바다이다(계 13:1). 또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인 흰 보좌 심판 바로 다음의 근접 문맥인 21:1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바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흰 보좌 심판에서 언급하는 바다는 악의 세력과 관련이 깊고, 따라서 20:13의 부활은 바다에서 나오는 악인들의 부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⁴⁾

abandoned”라고 피력한다(538).

- 2) J. Webb Mealy, *After the Thousand Years: Resurrection and Judgment in Revelation 2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188. Robert L. Thomas, *Revelation 8-22: An Exegetical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95), 430-433; David J. MacLeod, “The Sixth ‘Last Thing’: The Last Judgment and the End of the World(Rev 20:11-15),” *Bibliotheca Sacra* 17(2000), 315-330.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개정증보판(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3), 221.
- 3) 그의 논문 “The Sixth ‘Last Thing’: The Last Judgment and the End of the World(Rev 20:11-15),” 321의 각주 26을 보라.
- 4) Richard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Studies on the Book of Revelation* (Edinburgh: T&T Clark, 1993), 69-70; _____, “Resurrection

20:12-13을 악인들만의 심판으로 보는 근거로 제시되는 또 다른 증거는 1) 죽은 자라는 표현 그리고 2)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든 사상이 때문이다. 즉, 요한계시록에서 죽은 자라는 표현은 오직 불신자(악인)를 나타낼 때 쓰인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든 사상은 오직 불신자에게만 해당하고 성도(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사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1.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바다

위에 제시한 근거를 하나하나 검토해보면, 20:11-15을 악인들만의 육체적 부활로 보는 견해는 타당치 못한 해석임을 알게 된다.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다. 비일(G. K. Beale)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5가지로 구분했다:⁵⁾ 1) 우주적 악의 기원(계 4:6, 12:18, 13:1, 15:2); 2)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불신적이고 반역적인 열방들(계 12:18, 13:1, 17:2, 6); 3) 죽은 자들의 장소 (20:13); 4) 세상의 위상적 상업행위가 벌어지는 주요 장소 (계 18:10-19); 5) 문자적인 물의 모임.⁶⁾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그의 견해는 어느 정도 타당한 관찰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라는 말이 지배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as Giving Back the Dead: A Traditional Image of Resurrection in the Pseudepigrapha and the Apocalypse of John,” James H. Charlesworth and Craig A. Evans ed. *The Pseudepigrapha and Early Biblical Interpretation* (Sheffield: JSOT Press, 1993), 269-291.

- 5)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1042.
- 6) Beale 앞의 책 (1999), 같은 곳. Beale의 견해에 따르면, 바다가 문자적인 물의 모임을 의미할 경우, ‘땅’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고 있으며, 따라서 바다는 옛 창조의 일부로 이때 쓰이는 땅과 바다는 옛 창조 전체를 가리킨다고 본다.

사탄과 짐승이 지배하고 활동하는 영역이며(계 12:12, 13:1),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영역이고(계 7:1, 2, 3, 8:9, 10, 16:3), 바벨론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계 18:17, 19, 21).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바다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 (1)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나타내는 영역 가운데 하나를 의미하기도 한다(계 5:13, 14:7). 이 경우 공히 하늘, 땅, 바다라는 말이 짝으로 등장한다.
- (2) 하나님의 면전 그리고 성도들의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쓰이기도 하는데(계 4:6, 15:2), 이 경우 흥미로운 것은 그냥 ‘바다’라고 쓰이지 않고 공히 수식어가 붙어 ‘우리바다’라고 언급된다.
- (3) 문자적으로 바다를 의미하기도 한다(계 20:8). 즉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따라서 바다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20:13에서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접문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1:1에서 마지막으로 바다가 한 번 더 언급되는데 여기서 이 단어는 바다가 사라지고 없게 된다는 문맥에서 쓰이고 있다. 이 바다는 앞서 지적한 대로 악한 영역으로서의 사탄이 활동하고 지배하는 영역인가 질문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바다가 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것이 사탄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결국 없어져야 할 영역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언급되는 바다는 창조세계의 일부로서의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언급할 때, 바다가 언급되고 있다는 위의 관찰에서도 지지를 받는다. 즉,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언급할 때는 항상 하늘, 땅, 바다라는 단어들이 쌍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계 5:13, 14:7).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계 5:13).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7).

주목해야 할 점은 21:1에도 이와 똑같은 패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리고 바다라는 말이 함께 짝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21:1은 옛 창조세계가 새 창조세계에 의해 대체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하늘, 땅, 바다라는 단어들의 짝은 21:1뿐만 아니라, 바로 앞 본문인 20:11-15에서도 그대로 등장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요컨대, 흰 보좌 앞에서 언급하는 바다는 악이 활동하고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세계, 좀더 정확히 말해 옛 창조세계의 일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더 타당하다. 옛 창조세계에 속하는 바다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함을 보여주는 표현이 20:13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를 사탄의 활동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영역을 의미할 때는, 대부

분 하늘, 땅 바다라는 3개의 짝 대신에 땅과 바다라는 두 단어의 쌍으로 언급된다(계 7:1-3, 8:9-10, 12:12, 13:1-11, 16:2-3).

따라서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서사 패턴은 20:11-15에 등장하는 심판, 특히 13절에서 부활하는 자들(바다에서 부활하는 자들)이 악인들만이 아니라 의인들까지 포함한 보편적 부활임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13절에 언급되고 있는 사망과 음부도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들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보캄(Bauckham)이 지적했듯이, 초기 유대교 문헌들에 의하면 음부(Sheol)는 악인들만을 가두는 영역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의인들도 죽은 후에 거하는 곳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⁷⁾ 이것은 20:13의 사망과 음부가 반드시 악인들만이 머무는 장소나 영역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증거이다. 초기 유대교 문헌들을 보면, 20:13에 나오는 ‘죽은 자를 되돌려주다’는 표현이 나온다.⁸⁾ 이 문헌들 가운데는 악인만의 부활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을 언급하는 대목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에녹1서 51:1-2; 2에스드라서 4:35-4:42, 7:33ff; LAB 3:10, 33:3; 바룩2서 21:23, 4:8, 49:48-50:2). 결국 20:13에 등장하는 바다는 사망과 음부와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이들은 죽은 자들의 장소나 죽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앞의 논증에 비추어 타당하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상기 견해를 뒷받침한다(계 1:5, 14:13; cf. 20:5). 요한계시록에 암시되어 있는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계 1:5)이 20:11-15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찰은 흰 보좌 심판이 단순히 악인의 부활과 이들의

7) Beale, 앞의 책(1999), 65.

8) Beale, 앞의 책(1999), 56-70.

심판을 의미하지 않고, 악인과 의인들 모두를 포괄하는 부활과 심판을 보여준다.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은 20:11-15의 흰 보좌 심판이 의인과 악인 양쪽 모두를 포함한 심판이라고 보면서도, 20:12은 의인의 심판만을 언급하고 있고, 20:13은 악인의 심판만을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⁹⁾ 하지만 이런 견해는 지금까지 앞에서 증명한 바대로 본문 자체,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체의 주석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지나친 도식화이다. 오히려 20:11-15 전체가 의인과 악인들의 부활을 포함한 최후심판을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또한 20:12에 나오는 심판은 의인뿐 아니라, 악인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13절의 심판도 역시 모든 사람들의 심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⁰⁾

2. 죽은 자들

요한계시록 20:12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 보좌 앞에 서 있다는 표현은 마치 어린양이 부활하여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과 유사하며 따라서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여기서 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왜 악인과 의인 모두를 죽은 자들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 죽은 자들을 곡과 마곡의 전투로 죽은 사람들, 즉 악인들로 본다. 이 전쟁에

9) Grant R. Osborne, *Revelatio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2), 721-724.

10) 혼동을 피하기 위해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심판은 벌을 의미하기도 하고, 상과 벌을 주는 전체 행위를 또한 심판이라고도 한다. 본인이 여기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할 때,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중립적 의미의 심판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의미의 영벌을 의미하지 않고 쓰고 있다.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는 결정도 하나님이 하는 심판의 결과라는 의미이다.

11) Beale, 앞의 책(1999), 1032.

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들을 20:5에 언급되고 있는 ‘나머지 죽은 자들’로 간주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로 보는 견해도 있다.¹²⁾ 다시 말해, 순교자들을 뺀 나머지 성도들과 악인들로 본다. 약간 변형된 의견은 나머지 죽은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악인들만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 죽은 자들이 모든 사람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임이 확실해진다. 왜 모든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부르는가?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육체적 부활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은 이미 20:4에서 이미 ‘살아서’라는 동사를 통하여 첫째 부활을 언급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순교자들’과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다. 이들이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 여기서 ‘살아서’라는 동사는 부활을 의미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20:4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는 말에 이미 암시가 되어 있다. 이들이 영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20:5에 등장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른 아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악인 전체를 가리킨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의인 전체이고, 20:5에 언급되는 자는 의인을 제외한 모든 악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의인은 영적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 노릇하는데, 악인들은 20:4의 의인들처럼 영적으로 살아나지도 못하고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12) J. Ramsey Michaels, *Revel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7), 230.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나지 못한 악인들, 그리고 영적으로만 살아서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는 의인들은 언제 육체적으로 부활하는가? 이 대답이 20:11-13에서 제시된다. 의인과 악인 모두 흰 보좌 앞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이다. 20:5에서 왜 사람들을 죽은 자들로 간주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진다. 즉, 이미 영적인 부활(“살아서”)을 말하는 20:4은 모든 의인들이 죽음을 맞이했거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즉 죽은 자들로 전제하고 있고, 동시에 악인들 또한 20:5에서 죽은 자들로 전제되고 있다. 즉, 20:5이 명시적으로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구절을 통해 모든 사람을 죽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음은 우리의 견해가 타당함을 보여준다. 요컨대, 의인(성도)들과 악인들이 모두 흰 보좌 앞에 육체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서 있는 것이다. “큰 자나 작은 자나”라는 표현은 육체적으로 부활한 이들이 악인과 의인 모두임을 암시한다.

III. 흰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두 종류의 책들

20:11-15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최후심판이라는 해석에 근거하여 이제 흰 보좌 앞에 놓여 있는 책들의 성격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1.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의인의 행위와 악인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

먼저 흰 보좌 앞에 퍼져 있는 책들은 누구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즉 악인들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인가, 아니면 의인들의 행위도 함께 기록된 책인가 하는 것이다.

유대교 문헌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등장하는 본문들이 있다. 먼저는 이 책이 단수인 경우

(에녹1서 81:2; 에녹2서 52:15[A]; 에녹3서 30:2; 스바냐묵시록 3:8-9)와 복수인 경우(2에스드라서 6:20; 에녹1서 90:20; 에녹2서 52:15[J]; 에녹3서 44:8-9; 이사야승천서 9:22; 아브라함유언서 12:7-18; 바룩2서 24:1)가 있다. 20:11-15에 등장하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복수 형태인 것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심판 때의 책들(단 7:10)과, 또 방금 언급한 심판 때의 책들에 관한 유대교의 사상을 반영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전체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은 누구의 행위를 기록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유대교 문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악인의 행위만을 기록한 책들인 경우가 있다(에녹1서 90:20, 97:6, 104:5-7; 에녹3서 44:8-9). 또한 악인의 행위와 더불어 의인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에녹1서 81:1-4, 에녹2서 52:15; 스바냐묵시록 3:8-9; 이사야승천서 9:19-23; 아브라함유언서 12:7-18). 그리고 악인의 행위와 의인의 행위를 기록한 책을 언급할 때는 단수형태의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에녹1서 81:1-4; 에녹2서 52:15[A]; 에녹3서 30:2; 스바냐묵시록 3:8-9), 복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에녹2서 52:15[J]; 이사야승천서 9:22; 아브라함유언서 12:7-8; 바룩2서 24:1). 니켈스버그(George W. E. Nickelsburg)는 초기 유대교 문헌들 중 심판의 때에 책들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는 사상이 풍부한 에녹1서를 통해 하늘에 있는 책(들)의 내용을 다음 3가지로 언급한다: 1) 인간의 행위들, 특히 의인을 억압하는 악인들의 행위들; 2) 의인들의 이름들; 3) 의인들의 상급.¹³⁾ 특히 에녹1서 104:1에 대한 해석에서 이 본문

13) George W. E. Nickelsburg, *1Enoch 1: A Commentary on the Book of 1 Enoch, Chapters 1-36; 81:108* (Minneapolis: Fortress, 2001), 478. 에녹1서에서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언급하는 대목은 81:1-4, 90:20, 97:6, 104:5-7이고, 생명의 책 혹은 산 자들의 책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본문은

이 에녹1서 103:1-3과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여기에서 언급되는 의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록될 것이라는 대목은 단지 의인들의 이름만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들과 또 미래에 올 그들의 보상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¹⁴⁾

따라서 20:12-13과 유사한 이러한 유대교 문헌에 대한 고찰은 22:11-15의 심판 대상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상이 반드시 악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악인과 의인 모두를 포함한 심판 장면으로 묘사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여기에서 악인들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을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 또한 부인할 수 없다.¹⁵⁾ 하지만, 우리가 앞서 주장한 대로, 흰 보좌 앞에 육체로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악인과 의인이기 때문에 행위 심판도 이 의인과 악인 모두를 포함한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2. 생명의 책

그러면 왜 생명의 책이 심판대 앞에 펼쳐져 있는가? 생명의 책이 있고, 행위의 책들이 있다면 생명의 책은 의인들에게만 적용되고, 행위의 책들은 악인에게 심판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의 책도 의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며, 따라서 의인들도 생명의 책에 기록

47:3, 104:1-7, 108:3이다.

14) Nickelsburg, 앞의 책(2001), 528-529.

15) 요한계시록 저자인 요한이 반드시 초기 유대교 문헌의 사상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하지만 20:11-15의 심판에 관한 묘사와 초기 유대교 문헌들 사이의 유사성은 필자의 주장이 단지 상상력이 풍부한 추측 이상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된 의로운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든 것을 다음의 논증을 통해 밝히겠다.

우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 가운데, 심판의 문맥에서 악인의 행위를 제외하고, 오직 의인의 행위만을 기록한 책(들)만을 언급하는 초기 유대교 문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의인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으면 동시에 악인의 행위를 기록한 책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초기 유대교 문헌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스바냐묵시록 3:5-9이다.¹⁶⁾ 이 장은 요한계시록 20:11-15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과 생명의 책(=살아 있는 자들의 책)이 등장한다.

그들은 하늘 문에서 본 대로 그들의 원고(책)에 의인들의 선한 행위들을 기록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그들 손에서 취하여 전능하신 주 앞으로 가져온다; 그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 (혹은, 살아 있는 자들의 책 the book of the living)에 기록한다. 또한 땅에 있는 참소자의 천사들[을 보았다]. 그들 또한 그들의 원고(책)에 인간들의 모든 죄를 기록한다. 그들 또한 하늘 문에 앉아 있다. 그들은 그 참소자에게 말한다. 그는 이들이 세상과 아래에서 나올 때 그들을 비방하기 위하여 그의 원고(책)에 그들을 기록한다.¹⁷⁾

16) 심판의 문맥에서 행위의 책(들)과 생명의 책(들)을 동시에 언급하는 다른 문헌으로는 에녹3서 18:24, 28:7이 있다. 이 본문에서 행위의 책들은 ‘죽은 자들의 책들’(the books of the dead)과 ‘살아 있는 자들의 책들’(the books of the living)로 언급된다. 하지만 이 문헌은 추정 기록 연대가 AD 5-6세기로 요한계시록보다 후대의 것이므로 우리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17) O. S. Wintermute, “The Apocalypse of Zephaniah,” James Charlesworth 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1* (Garden City, NY: Doubleday, 1983), 511. 한글 텍스트는 필자의 사역이다.

비슷하게 20:12에도 행위를 기록한 책들과 함께 생명의 책이 나온다. 스바냐 묵시록은 의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의인들의 선한 행위들이 기록되는 것 사이에 일종의 인과관계를 암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즉 의인들의 선한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가 되어 전능하신 주께서 이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 기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두 종류 책들을 이런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의 책은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이 더 깊기 때문이다(계 13:8, 17:8).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창세전부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다. 생명의 책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양의 생명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이름이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¹⁸⁾

다음으로, 생명의 책은 행위를 기록한 책인가? 우선, 생명의 책은 신실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명시한다. 요한계시록에 생명의 책은 대부분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계 3:5, 13:8, 17:8, 20:15(?), 21:27). 짐승을 따르는 자는 결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계 13:8, 17:8). 반면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계 21:27). 그렇다면, 생명의 책에는 신실한 성도들의 이름만 기록되고 이들의 행위는 기록되지 않는가? 이 질문에 20:12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18) Charles Homer Gibl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Open Book of Prophecy*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1), 193. Ben Witherington III, *Reve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263.

καὶ βιβλία ἡνοίχθησαν, καὶ ἄλλο βιβλίον ἡνοίχθη, ὃ ἐστὶν τῆς ζωῆς, καὶ ἐκρίθησαν οἱ νεκροὶ ἐκ τῶν γεγραμμένων ἐν τοῖς βιβλίοις κατὰ τὰ ἔργα αὐτῶν.

12절을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진술에서 ‘책들’(βιβλίοις) 앞에 정판사가 붙어 있다. 이 정판사가 붙은 ‘책들’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는 복수 형태의 βιβλία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의 가능성은 βιβλία와 ἄλλο βιβλίον을 모두 언급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문법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능성 가운데 어느 것이 문맥에 맞고, 요한이 의도한 것인지 살펴보자.

만약 20:12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표현인 καὶ ἐκρίθησαν οἱ νεκροὶ ἐκ τῶν γεγραμμένων ἐν τοῖς βιβλίοις만 있었으면, 악인은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의인(성도)은 또한 책에 기록된 대로, 즉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20:12의 본문은 또 다른 표현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각자의 행위대로”(κατὰ τὰ ἔργα αὐτῶν)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이 구절이 앞 구절과 병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악인은 책들에 기록된 (악한) 행위대로, 의인은 생명책에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라는 해석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오히려, “각자의 행위대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ἐκ τῶν γεγραμμένων ἐν τοῖς βιβλίοις κατὰ τὰ ἔργα αὐτῶν)라는 구절은 생명의 책도 일종의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해석하도록 만든다.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의 책’을 언급할 때는 대부분 ‘이름’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유일하게 20:11-

15에는 ‘생명책’은 나오지만 명시적으로 ‘이름’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20:15가 ‘이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본문은 ‘생명책’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단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생명의 책’에 대한 구절들과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20:11-15는 ‘생명의 책’이 의인의 ‘이름’과 함께 이들의 ‘행위’들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가능성을 열어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초기 유대교 문헌은 생명의 책에 의인의 이름과 함께 의인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요한계시록 20:12의 구문론적 해석은 흰 보좌 앞에 있는 생명의 책이 의인의 이름과 함께 의인의 행위를 기록한 책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3. 요한계시록의 전체 문맥

필자는 지금까지 악인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며, 의인들도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럼 지금까지 필자의 논의와 주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과 일치하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필자의 논의는 상상력이 풍부한 주장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림을 보면 지금까지의 우리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가. 요한계시록 2-3장과 19:11-22장의 관계

이러한 결론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예언적 메시지들(2-3장)과 19-22장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는다. 피오렌자(E. S. Fiorenza)가 지적했듯이 2-3장과 19:11-22:9은 일종의 약속과 성취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¹⁹⁾ 이러한 관계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

19) Elizabeth S. Fiorenza, *The Book of Revelation: Justice and Judgment*

어지는 약속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나 사상들이 동일하게 19-22장에 쓰이고 있다는 데서 증명된다.²⁰⁾ 일곱 교회를 향한 예언적 메시지에 언급되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은 19:11-22:9에서 성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생명나무(계 2:7, 22:2, 14, 19),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보호(계 2:11, 20:6, 21:4), 새 이름(계 2:17, 19:12, 22:4), 열방을 다스림(계 2:26-27, 20:4), 새벽별(2:28, 22:16), 흰옷과 생명책(계 3:4-5, 19:14, 20:12, 5, 21:17), 하나님의 성전(계 3:12, 21:22), 새 예루살렘(계 3:12, 21:2, 10),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음(계 3:21, 20:4, 22:5) 등이 요한계시록의 서두와 본문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주제들이다.²¹⁾

나. 사데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준 약속

앞에서 다룬 2-3장과 19:11-22:9의 약속과 성취의 관계는 사데교회에 보낸 예언적 메시지의 내용 중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문 3장 5절은 사데교회에 보낸 예언적 메시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내용이다. 이 약속은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1)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 2)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것; 3) 예수께서 이기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과 그의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175.

20) Kyoung-Shik Kim, “God will judge each one according to his works: the investigation into the use of Psalm 62:13 in early Jewish literature and the New Testament,” Ph.D. diss. (University of Aberdeen, 2005), 267.

21) Kyoung-Shik Kim, 앞의 논문(2005), 같은 곳. 또한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Pilchan Lee, *The New Jerusalem in the Book of Revelation: A Study of Revelation 21-22 in the Light of Its Backgrounds in Jewish Tradition* (Tübingen: Mohr Siebeck, 2001), 246.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물론 둘째 절로 이기는 자의 이름과 생명책과의 관계이다.

ὁ νικῶν οὕτως περιβαλεῖται ἐν ἱματίοις λευκοῖς καὶ οὐ μὴ ἐξαλείψω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ἐκ τῆς βίβλου τῆς ζωῆς καὶ ὁμολογήσω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ἐνώπιον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καὶ ἐνώπιον τῶν ἀγγέλων αὐτοῦ.

이 구절이 보여주하고자 하는 바는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며 이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 구절이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바는 이기지 못하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버리겠다는 것이다. 즉, 생명의 책은 그 가운데 기록된 이름을 제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논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을 따르며,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아예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다. 반면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렇다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도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생명책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하다. 즉 생명의 책은 그 안에 이름을 더할 수는 없는 책이지만, 그 안에서 이름을 제할 수는 있는 책이라는 것이다. 짐승을 따르며 경배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아예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거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리고 그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은 분명히 불신자들(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라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다시 말해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제거되는 사람은 어린양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짐승을 따르는 니콜라당, 이세벨,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임에 틀림없다.

앞에서 언급한 2-3장과 20-22장의 관계는, 특히 3:5에 언급된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을 (비록 암시적이지만) 지운다 혹은 지우지 않는다는 일종의 경고/약속의 말씀으로 20:11-15에 나오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의 심판’을 해석하는 데 빛을 던져준다. 3:5은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발견되는 자들(혹은 지워지지 않는 자들)이며, 이와는 반대로 짐승을 따르며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3:5에서 예고했던 그 심판이 실제로 20:11-15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3장에는 충성된 자들과 거짓 선생의 미혹을 받아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혼합공동체로서의 교회는 20:11-15에서 거짓선지자들을 포함한 짐승을 따르는 거짓신자들과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신자들로 구분된다. 거짓신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흰 보좌 심판에 가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빠진다는 것은 다름 아닌 배교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 점은 다음의 초기 유대교 문헌들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먼저, 희년서 30:21-23에 ‘생명의 책’이라는 문구와 함께 ‘생명의 책에서 지워진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범죄하여 부정한 모든 길로 행하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서판에 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책에서 지워질 것이며 멸망될 자들의 책에 기록될 것이다.²²⁾

22) O. S. Wintermute, “Jubilees,” James H. Charlesworth 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vol. 2 (NY: Doubleday, 1985), 114. 번역은 필자의 사역임.

여기서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은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분명히 언급된다. 즉,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면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져 멸망하리라는 것이다. 문맥상 배교한 이스라엘 자손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질 것임을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

또 다른 유대교 문헌은 에녹1서 108:3이다. 여기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108:1-2)과 사악한 자들이 대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악한 자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과 거룩한 자의 책들에서 지워질 것임을 말한다. 이 사악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는 108:6에 설명된다. 즉,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변경하는 자들’이 그들이다. 다시 말해 배교자들인 것이다. 사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책(생명의 책)에서 사람을 지운다는 표현이 출애굽기 32:32-33에 등장한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는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들, 즉 배교자들이다.²³⁾

이러한 배경은 20:15에서 말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단지 처음부터 침송을 따르는 불신자들(즉, 땅에 거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거짓선지자들을 포함해 이들의 미혹을 받아 침송을 따르는 거짓신자들을 가리킨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준다. 그리고 20:15에서 그 강조점은 후자인 거짓신자, 즉 이기도록 요청을 받지만 결국 미혹을 받아 이기지 못하는 자들에 있다.

IV. 결론

이 논문에서 밝히려고 한 바는 요한계시록의 최후심판 장면에서 두 종류의 책들(생명의 책과 다른 책들)이 함께 등장하는 이유였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생명의 책 또한 의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들

23) 앞에서 언급한 이 두 유대교 문헌은 출애굽기 32:32-33의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의 행위를 기록한 일종의 행위의 책임을 주장했다. 흰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두 종류의 책들은 한편으로 악인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한 책(생명의 책)은 의인의 이름과 행위도 포함하는 책이다. 최후심판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 짐승과 바벨론에 타협하는 사람들과,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짐승과 바벨론과 타협하는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왜 최후심판의 문맥에 두 종류의 책들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가? 흰 보좌 앞에 있는 두 종류의 책들은 의인과 악인들이 왜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최후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한 종류의 책들(소위 ‘행위의 책들’)은 악인의 심판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증거로 심판대 앞에 펼쳐져 있다. 반면에 ‘생명의 책’은 의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이들의 행위를 토대로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요한계시록은 한편으로는 생명의 책을 통해 선택사상을 강하게 부각시키지만, 동시에 그 선택사상이 결코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세벨,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선생들과 이들의 미혹을 받아 신앙을 타협하는 신앙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 따라 흰 보좌 앞에 섰을 때 자기 이름이 생명의 책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생명의 책에서 이들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짐승을 따르기 위해 신앙을 타협하고 우상을 섬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 때문에 배교자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것은 필자가 다른 곳에서 논했던 것처럼, 요한이 20:12-13에서 시편 62:13을 인용하며 행위 심판을 거론한 점에서 찾아야 한다.²⁴⁾ 즉, 인간의 권력 그리고 돈을 의

지하는 결과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권력과 돈은 황제숭배와 상업주의로 확대되는데, 신앙공동체 내의 충성스럽지 못한 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이 황제숭배와 상업주의에 타협함으로써 짐승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이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는 말은 바로 이 인간의 권력과 돈을 의지한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라는 말이다.

24) Kyoung-Shik Kim, 앞의 논문(2005).

참고문헌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개정증보판.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3.

Bauckham, Richard. *The Climax of Prophecy: Studies on the Book of Revelation*. Edinburgh: T&T Clark, 1993.

_____. "Resurrection as Giving Back the Dead: A Traditional Image of Resurrection in the Pseudepigrapha and the Apocalypse of John." James H. Charlesworth and Craig A. Evans, ed. *The Pseudepigrapha and Early Biblical Interpretation*. Sheffield: JSOT Press, 1993, 269-291.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Fiorenza, Elizabeth S. *The Book of Revelation: Justice and Judg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Glasson, T. Francis. "The Last Judgment—In Rev. 20 and Related Writings." *NTS* 28/4(1982), 528-538.

Kim, Kyoung-Shik. "God will judge each one according to his works: the investigation into the use of Psalm 62:13 in early Jewish literature and the New Testament." Ph.D. diss. University of Aberdeen, 2005.

Lee, Pilchan. *The New Jerusalem in the Book of Revelation: A Study of Revelation 21-22 in the Light of Its Backgrounds in Jewish Tradition*. Tübingen: Mohr Siebeck, 2001.

MacLeod, David J. "The Sixth 'Last Thing': The Last

- Judgment and the End of the World(Rev 20:11-15).”
Bibliotheca Sacra 17(2000), 315-330.
- Mealy, J. Webb. *After the Thousand Years: Resurrection and Judgment in Revelation 2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Michaels, J. Ramsey. *Revel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7.
- Nielsburg, George W. E. *1 Enoch 1: A Commentary on the Book of 1 Enoch, Chapters 1-36; 81-108*. Minneapolis: Fortress, 2001.
- Giblin, Charles Homer. *The Book of Revelation: the Open Book of Prophecy*.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1.
- Osborne, Grant R. *Revelatio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2.
- Thomas, Robert L. *Revelation 8-22: An Exegetical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95.
- Wintermute, O. S. “The Apocalypse of Zephaniah.” James Charlesworth 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1*. Garden City, NY: Doubleday, 1983.
- Witherington, Ben. *Reve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Abstract

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 and Two Different Books in Revelation 20:11-15

Kyoung Shik Kim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is paper looks into the reason why two different kinds of books are present in the scene of the final judgment which is called 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 Although many scholarly works have been done focusing on Revelation 20:1-11, they have ignored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nce of two different kinds of books at the final judgment scene. In spit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scholars' view that the great white throne scene deals with the punishment of the wicked, this paper argues that 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 should be understood as universal judgment, namely, punishment of the wicked and reward of the righteous.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book of life as well as the so-called books of deeds is best understood as containing each one's deeds. To put it another way, the book of life contains not only the names of the righteous but also their righteous deeds. This paper argues that those who are not found

in the book of life in Revelation 20:15 are the compromising people who follow the beast, deceived by the false prophet. The righteous who God wrote in the book of life before the creation do not fail to enter the New Jerusalem, while the names of the earth-dwellers are not found in the book of life, and instead their wicked deeds are written in the book of deeds.

Our study shows that those mentioned in Revelation 20:15 are primarily the apostates whose names are erased from the book of life since they followed not the lamb but the beast while compromising their faith with Roman imperial cult and commercialism. The book of life as well as the so-called books of deeds is present in the final judgment scene in order to give the explanation why they face two different destiny.

Revelation relates the book of life to God's election on the one hand. It also shows that God's election does not exclude human responsibility by indicating that the names of the unfaithful can be erased from the book of life. Only the names and works of the faithful are found in the book of life.

◎ 주제어(Keyword):

생명의 책, 최후심판, 행위심판, 요한계시록 20:11-15(The book of life, the final judgment, judgment according to works, Revelation 20:11-15)